

# 소공동체 모임

천주교 산호세 성당

2006년 2월

- \* 소공동체 모임은 신자들의 기도 모임이며,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 \*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 \* 모임은 60분에서 90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집주인은 간단한 차를 준비하는 정도가 좋습니다.

## 모임 순서

소공동체 모임준비: 중앙에 십자가와 그 옆에 성모상을 준비하고 촛불을 켜 놓는다.  
어린이들이 여럿이 있으면 별도로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실도 준비한다.

개인 준비물: 성서, 묵주, 기도서, 영적 필기도구 등

1. 시작 성가: 19번(주를 따르리)
2. 묵주 기도 봉헌: 반장은 미리 그날의 지향에 대해 알려준다. 5단을 봉헌한다.  
(새 성전이 마련될 때까지는 성전건축을 지향으로 바친다)
3. 성서 읽기: 요한1, 35-42(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
  - 그날 복음, 혹은 자유롭게 성서를 택할 수 있다.
  - 대표 교우가 큰 소리로 낭독한다.  
돌아가면서 1절씩 읽는다.
  - 잠시 침묵 속에서 자신에게 닿는 구절을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4. 말씀 나누기
  - 말씀 나누기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다.  
말씀이 끝나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기도한다.
  - 말씀 나누기는 토론의 장소가 아니기에 토론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기쁜 마음으로 경청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교우를 위해 기도한다.(화살기도)
5. 자유기도 봉헌: 빠짐없이 돌아가면서 개인의 기도를 봉헌한다.
6. 공동기도 봉헌: 가정, 자녀, 나라, 평화, 외교인 등 공동기도를 기도서에서 함께 봉헌할 수 있다.
7. 기타: \* 공지사항 - 새 성전 마련을 위한 기도를 정성껏 바치자.  
- 성지가지 수거(사무실 앞 '성지가지 수거함' 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모임 결정
8. 주님의 기도: 서로 손을 잡고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9. 마침 성가: 45번(참사랑)

## MEMO

##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성체성사의 해(2004년 10월-2005년 10월)에 주교들, 성직자들, 신자들에게 보내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교서

### 서론

1.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scum Domine).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루가 24,29 참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들과 함께 길을 걷던 나그네에게 건넨 권유였습니다. 슬픈 생각에 잠겨 있던 제자들은 이 나그네가 바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들의 스승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명’해 주실 때 뜨거운 감동을 느꼈습니다(루가 24,32 참조). 말씀의 빛으로 그들의 닫힌 마음과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루가 24,31)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정신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나그네는 그들에게 희망을 다시 일깨우는 한 줄기 빛을 던져주며, 충만한 빛을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 하며 두 제자는 간청하였고, 나그네는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얼마 안 있어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져 버리지만, 스승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눈을 열어 그분을 알아보게 한 “빵 나눔” 안에 감추어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입니다.

2.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거룩한 성체성사의 신비를 살아가려고 특별히 노력하게 될 교회에 한 해 동안 적절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가지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나 몹시 낙담했을 때에도, 그 거룩한 나그네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걸어가시며, 우리에게 성서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하느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만나 볼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을 지나 ‘생명의 빵’에서 흘러나오는 빛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생명의 빵’이야말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이 최상의 방식으로 이행된 것입니다.

3. “빵 나눔”은 초기 교회 때에 성찬례를 일컫던 말로서 언제나 교회 생활의 핵심이 되어 왔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죽음과 부활의 신비를 시간 안에 현존하게 하십니다. 빵 나눔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요한 6,51)으로서 당신 자신을 직접 내어 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받아 모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받고 천상 예루살렘의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교부들과 세계 공의회들, 그리고 저의 선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저는 여러 번, 가장 최근에는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Ecclesia de Eucharistia)를 통하여, 교회가 성체성사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더 깊이 연구되고 성찰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놀라운 성사에 한 해 전체를 바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였습니다.

## <성서묵상>

주제 :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

(요한1,35-42)

무릇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마지막 스승’이요, 다른 하나는 그 마지막 스승을 만나기까지 디딤돌이 되어주는 ‘중간 스승’이다.

요한은 자기가 후자임을 알았고 그대로 살았다. 자기보다 크신 분에게 제자를 떠나보내는 태도가 돋보인다. 과연 스승답다. 예수의 이름 아래 존재하는 ‘스승’이라면 자기를 찾아온 모든 사람을 마땅히 예수께로 이끌어야 한다. 중간에서 자기가 스승 노릇을 하려고 든다면 그는 틀림없이 가짜다. 이 일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였으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7,26). 진정한 가르침은 스승의 입술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신 곳을 보고자 한 것은 그분의 삶을 살펴보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자기네가 찾던 그리스도(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는 하룻밤 함께 지내는 것으로 충분했다.

*함께 지내지 않고서는 그 삶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연구의 대상이거나 몇 권의 책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결단과 그 삶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 <하나로 커지는 사랑>

어떤 나그네가 어느 마을을 지나던 중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업고 발고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들은 씨를 뿌리고 있었다. 궁금해진 나그네가 발뚨에 서서 물었다.

“왜 업고서 일을 하십니까?”

발 한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돌려 나그네를 쳐다보았다.

“예, 우리는 보시다시피 문둥병 환자들입니다.”

짤막한 대답을 한 남자는 다른 남자를 업은 채로 고랑 사이를 헤치고 다녔다.

의아해진 나그네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병으로 손이 이지러진 남자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친구를 등에 업고 씨를 뿌리고 있었다.

즉, 등에 업힌 친구가 씨앗을 뿌리면 다리가 성한 그 남자가 발로 그 자리를 두둑 밟아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두 사람의 힘으로 너끈히 해결해냈다.

나그네는 문둥병 환자들을 보며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랑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다시 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등에 업힌 남자가 친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 생활성서 소금항아리에서 퍼옴 -

<나눔> 나의 어떤 부분을 이웃과 나눌 수 있을까요?

## 어느 소나무의 가르침

소나무 씨앗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위틈에 떨어지고 다른 하나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흙 속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은 곧장 싹을 내고 쑥쑥 자랐습니다.  
그러나 바위틈에 떨어진 씨는  
조금씩밖에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흙 속에서 자라나는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를 보아라. 나는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너는  
왜 그렇게 조금밖에 못 자라느냐?”  
바위틈의 소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깊이깊이 뿌리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이었습니다.  
산 위에 서 있는 나무들이 뽑히고 꺾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위틈에서 자라나는 소나무는 곳곳이 서 있는데  
흙 속에 있는 나무는 뽑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바위틈에 서 있던 소나무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모질고 아프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지?  
뿌리가 튼튼하려면 아픔과 시련을 이겨내야 하는 거란다.”

< 영혼의 샘터 중에서 >

